

# 미국 행 한국인 보안 인터뷰 면제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행 항공기를 이용하는 한국 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와 추가 검색이 면제된다. 미국이 아시아 국가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한 건 한국이 처음으로, 그만큼 한국의 항공 보안 수준을 높게 평가했다는 뜻이다.



1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한국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제8차 한·미 항공보안 협력회의'에서 미국 교통보안청(TSA)과 '한·미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TSA는 2017년 6월 이후 자국에 대한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취항하는 전 세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승객·휴대물품 등에 대한 보안검색을 강화했다. 또 이후 각국 항공사의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왔으며, 연간 345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 미국행 승객이 보안 인터뷰와 탑승구 앞 전자제품, 분말, 액체류 등 추가 검색을 받는 불편을 겪었다.

특히 탑승구 앞 추가 검색은 미국이 무작위로 추출한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돼 당사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또 연 1만4,100편에 달하는 미국행 국적 항공기에 대한 검색 강화는 항공사에겐 비용 부담으로 이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보안검색 강화 이후 TSA는 한국 공항 및 항공사에 대한 보

안평가를 우수하다고 평가하여 왔으며,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한국과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에 합의했다. 한국은 2002년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9회에 걸친 인천·김해공항, 국적사 등에 대한 평가에서 모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및 미국행 항공기 보안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서에 따라 내년 하반기 이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승객에 대한 인터뷰 및 추가 검색 등의 불편이 해소된다. 항공사 등 업계에서 이에 따른 비용 절감액은 연간 2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어명소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한·미 간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추진은 양국의 우수한 항공보안 수준과 굳건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미국행 승객 불편 해소 및 불필요한 중복규제 감축 등 양국 간 공동의 이익에 기초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라며 "조기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상호인정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초등생 장래 희망 "의사보다 유튜버"

유튜버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직업 3위로 올라섰다. 과거에 자주 상위권에 올랐던 '과학자'는 '제과·제빵사'보다 낮은 13위로 밀렸다.

1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전날 전국 1,200개 초·중·고 학생 2만 4,783명과 학부모 1만6,495명, 교원 2,800명을 대상으로 올해 6~7월 진행한 '초·중등진로교육현황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초등학생 희망직업 1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운동선수' (11.6%)였다. 2007~2011년과 2013~2017년에 1위였던 '교사'는 작년처럼 2위 (6.9%)에 머물렀다. 초등학생 희망직업 3위는 '크리에이터' (유튜버·BJ·스트리머 등)가 차지했다. 응답자의 5.7%가 선택했다.

'유튜버'는 지난해 조사에서 5위를 차지해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한 데 이어 한 해 만에 두 계단 상승했다. 유튜버가 상위권에 오른 것은 초등학생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이 직업에 익숙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큰 수입을 올리는 유소년 유튜버에 대한 언론 보도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튜버는 중고교생의 희망 직업으로는 2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4~11위는 '의사', '조리사(요리사)', '프로게이머', '경찰관', '법률전문가', '가수', '뷰티디자이너', '만화가(웹툰 작가)'였다. 과거에 자주 10위권에 들었던 '과학자'는 작년에 12위였다가 올해는 제과·제빵사에 밀려 13위로 인기가 더 떨어졌다.

중고등학생은 희망직업 1위가 모두 '교사'였다. 2009년 조사에서 중학생 가운데 교사를 희망한 학생 비율은 18.1%였지만 올해 10.9%로 7.2%포인트 줄었다. 고교생 역시 같은 기간 12.4%에서 7.4%로 5%포인트 감소했다.

중학생의 경우 교사 다음으로는 '의사', '경찰관', '운동선수', '뷰티디자이너', '조리사', '군인', '공무원',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 개발자)', '간호사'의 인기가 높았다.

고교생의 경우 '경찰관', '간호사', '컴퓨터공학자', '군인',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 '건축가(건축디자이너)', '항공기 승무원', '공무원', '경영자(CEO)'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교육부 측은 "10년 전에 비해 교사를 희망하는 중고교생 비율은 계속 줄고 있다"며 "상위 10위까지의 직업이 차지하는 비율 총계도 감소세를 보여 희망 직업이 점점 다양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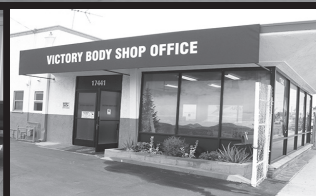
# 빅토리 바디샵

##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